

내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확대

제주시, 66억여원 투입... 올해보다 30% 증액 총 593명 참여 예정...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

제주시는 내년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올해 51억100만원보다 30% 증액된 66억4300만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영사업과 제주수출음식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를 통한 위탁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 등 총 593명이 참여하게 된다.

직영사업은 읍·동 근로유지형 환경정비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사업, 읍면동 복지도우미사업에 85명이 참여한다.

위탁사업은 농산물 1차 가공 및

납품사업, 출장제차사업, 자전거수리사업, 친환경재활용사업 등 32개 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508명이 참여하게 된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춘 자활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12개월 동안 연중 시행된다. 자활근로인건비는 실비를 포함한 일일당가가 근로유지형이 2만7970원에서 2만8810원, 사회복지서비스형 4만6790원에서 4만9120원, 시장진입형 5만3440원에서 5만611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인 청년저

축계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청년(만19~39세)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내용은 본인적립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매칭하는 1대 3 지원이다.

제주시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산성 있는 자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 1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사례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숲의 기운을 담아... 30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사려니숲길에서 탐방객들이 손을 마주 잡고 숲의 기운을 받고 있다. 이상국기자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단속

제조업체·대형마트 등 점검

제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2020년 1월 2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떡류, 한과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 제사음식, 전·튀김 전문 음식점

점, 선물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및 대형마트 등 5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설 성수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여부 ▷원료보관실, 세척실, 판매시설 등 청결관리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개인 위생관리 상태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 위반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소 40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식재료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그자

2020년도 서귀포시 신년인사회 안내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에 서귀포시민의 안전을 기원하고 화합을 위한 서귀포시 신년인사회를 개최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 시 : 2020년 1월 1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
- 주 최 : 서귀포시
- 주 관 : 서귀포로타리클럽
- 문 의 : 서귀포로타리클럽 회장 이대협 (☎ 010-7696-2180)

※ 초청장 등 개별 통지는 생략합니다.

서귀포로타리클럽
회 장 이 대 협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그랜드 보청기

연말연시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수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감귤 신상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목록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탐나는종 · 왕금향
미니향 · 아마니스
제라몬(레몬)

조 생
유리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사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모

010-2691-1883
010-3055-1885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표선고등학교 창업동아리 '블루밍' 소속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표선고 창업동아리팀 전국대회 수상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서 최우수·우수 잇단 쾌거

서귀포시가 지원하는 모의벤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표선고 창업동아리 2개팀이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기업가정신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7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표선고 창업동아리 '블루밍' 팀이 최우수상, '백미' 팀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공동 주최·주관한 대회에는 전국 212개 청소년 창업동아리 중 예산을 거친 66개팀이 참가했는데, 제주에서는 표선고 창업동아리 두 팀이 참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블루밍 팀은

'잘도 곱떡하지?'라는 상품명으로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없는 친환경 종이화장품(샴푸)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지역에서 자라는 신선한 허브를 이용해 만든 종이샴푸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현지에서 사전 예약주문도 받은 상태다.

우수상을 받은 백미 팀의 '표선골 길을 걷자'는 표선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표선 지역 여행을 위한 '블루밍' 팀이 최우수상, '백미' 팀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공동 주최·주관한 대회에는 전국 212개 청소년 창업동아리 중 예산을 거친 66개팀이 참가했는데, 제주에서는 표선고 창업동아리 두 팀이 참가했다.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올해 중문고와 표선고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75시간의 모의벤처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블루밍 팀은

중국 하이난서 제주해녀문화·축제 홍보

산야국제문화박람회 참가

서귀포시는 27~30일 중국 하이난성 산야시에서 열린 '제4회산야국제문화화산박람회'에 참가해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와 내년 서귀포시에서 열릴 주요 축제와 서귀포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문화로 세계를 연결하여 문화를 널리 알리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산야시 박람회에서는 41개국 110여개 도시와 기업들이 참여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전시품 전시와 문화공연, 무형문화유산 계승과 관련된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부터 야간개장하면서 15만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번에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과 산야시시서장과의 교류간담회에서는 20년지기 우호도시로서 그동안 쌓아온 우의와 국제 관광성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류 간담회에 함께 한 麗德국제여행사 대표는 내년 5월부터 제주와 산야시를 연결하는 직항노선 취항을 계획이라고 밝혀 양시 시민들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지는 제안도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늘다 돌보미 교육·현장실습 강화

제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확대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돌보미 교육 강화와 현장실습 확대로 돌봄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2020년 시간당 9890원)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중위소득 기준별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제주시에서는 도비로 중위 소득기준별로 차등해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소급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비 추가 지원금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나·다형 30%, 라형 10%에서 가·나·다형 40%, 라형 20%로 확대 지원했고, 2020년에도 확대 지원이 유지된다.

또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 현장실습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돌보미를 채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추가 지원해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고, 저출산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서귀포시 5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마무리

서귀포시는 매일올레시장, 향토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표선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등 5개 시장에 28억6000만원을 들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 매일올레시장에 7억6000만원을 투입해 아케이드 보수 등 4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향토오일시장에는 13억6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시설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완료했다. 또 모슬포중앙시장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소방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을 완료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